

맛의고장 전주, 외국인도 '먹방여행'

한국전통문화전당 음식체험실 '시루방'

외부체험객, 지난해 대비 480% 급증

외국인 관광객은 750%나 늘어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을 맛보기 위한 외부 체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이 음식조리체험실 '시루방'을 찾은 체험객 집계 결과에서 나타났다.

개관 3년째를 맞고 있는 '시루방'은 130여 명이 동시에 조리체험을 할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올해 1월~10월까지 이곳을 찾은 체험객은 모두 2,571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4명에 비해 977명(61.3%)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순수 외부 관광객 수는 1,5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7명에 비해 무려 480%나 증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주를 비롯, 도내 지역의 체험객들이 83.2%(1,3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외부 관광객이 60.2%(1,549명)로 지역 체험객 수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미국, 이집트,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전주한옥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손맛까지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시루방에서 조리체험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9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2명에 비해 무려 75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 관광객,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전당이 전주한옥마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조리체험과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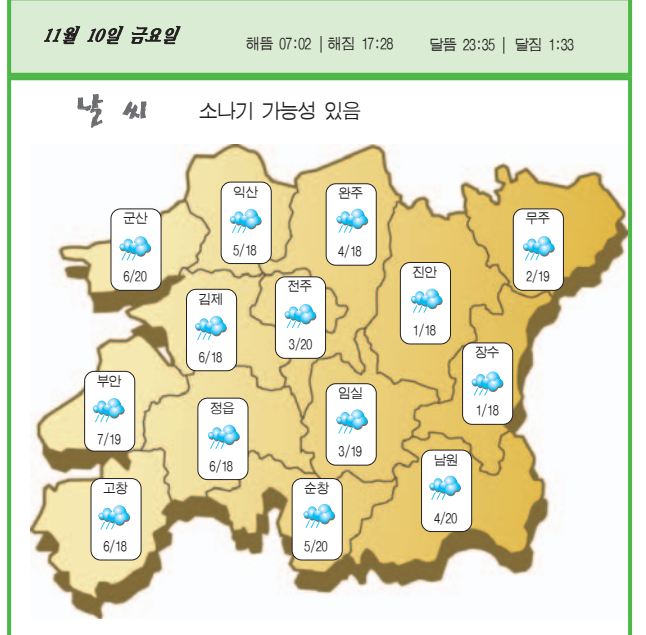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전당 음식조리체험실 '시루방'을 찾은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만든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체험, 전통체험, 공방체험, 공연관람, 문화해설 등 여러 가지 전통 관련 체험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주 음식문화에 기초한 시루방 조리체험은 잊혀져가는 전주음식의 보전과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주비빔

밥과 한과, 떡 등 전통음식체험, 전주음식 명인이 전하는 음식이야기 비빔 공개,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음식문화를 알려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루방 체험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한식창의센터(063-281-158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독일 도서관의 美... 전북대와 만나다

13일부터 이태리 건축가 파비오 바릴라리 특별전

책이 중시되는 전통적 도서관에서 점차 복합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학술뿐 아니라 기능적 요소, 그리고 건물 내 외부의 미적 요소까지 새로움이 넘쳐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박승제)이 세계적 건축가 이탈리아 파비오 바릴라리의 스케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도시를 읽다-독일의 도서관 건축'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주말 휴관)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펼쳐진다.

이탈리아의 건축가 파비오 바릴라리는 괴테 인스티튜트의 지원을 받아 독일 내 여러 도시들을 여행해

여러 점의 스케치를 완성했고 이를 통해 도시와 도서관 건축을 새로이 해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일의 주요 도서관을 스케치한 작품 24점과 도서관 건축 관련 독일 도서 34권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각 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도서관장 인터뷰, 도서관 이용객들의 반응도 소개될 예정이다. 박승제 전북대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독일 도서관 스케치 작품을 통해 도서관의 아름다움을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도서관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무르익어가는 전북대 가을의 아름다움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내년도 전기고 원서접수 10일 스타트

도내 44개 학교, 20일~24일 면접 · 27일 합격자 발표

2018학년도 전북대 전기고 일반전형 원서작성 및 접수가 10~14일 실시된다.

원서를 접수하는 전기고는 특목고(전북외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3교, 자율형사립고(군산중앙고, 남성고) 2교, 특성화고(전문계열, 대안계열) 28교, 일반고(예체계열, 전문계열) 11교 등 44개 학교다.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NEIS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타지역 졸업생 중 전북지역 거주자는 해당 고등학교를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타지역 졸업(예정)자는 전북고입전형포털시스템(<http://satp.jbe.go.kr>)에서 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면접 등 전형은 오는 20~24일 학교

별로 시행하며 합격자는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전기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지원한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다만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특성화고(대안계열 제외) 및 일반고(전문계열)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후기고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북학생교육원 11일 스포츠클라밍 대회 개최

전북도학생교육원(원장 김형택)은 2017년 정규 수련교육과정 수료생 중 참가 신청자를 받아서 11일 스포츠클라밍 대회를 개최한다.

합참고 박인혁 학생을 비롯하여 9개 학교 남녀 학생 3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 속도

경기(개인전)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장과 부상, 기념품이 주어진다.

전북학생교육원은 췌, 仁, 勇을 겸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장으로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정규 수련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험활동(챌린지), 국궁, 스포츠클

라밍과 심폐소생술, 리더십 교육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전북학생교육원 관계자는 "수련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중 스포츠클라밍에 관심이 있고 재능을 보인 학생들이 신청했으며 교육 수료 후 추수지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건전한 취미 생활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가 아니라 행복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